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 3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운태·이용섭·정동채 후보 3명은 위기의 광주를 구할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차기 광주시를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두 차례의 TV 토론회와 한 차례의 합동연설회도 거쳤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과거 전력 시비 등을 끄집어 공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실제 당면한 광주 위기는 무엇인지, 광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적었다. 이에 광주일보는 3명의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상대로 당면한 광주의 위기와 이를 해결할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또한, 그동안 각 후보의 약점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들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지난 4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손을 들어黨員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강운태 후보

中企 위주 서민경제 살려야
광주, 세계속 평화공동체로

-광주에서 제일 잘못된 점,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광주는 지금 3대 위기에 처해 있다. 첫째는 경제·문화적 자립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경제규모가 허약한데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및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인해 특히 호남에게 크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는 자치공동체로서 참여와 소통,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도청 별관, 광주광장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3가지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드러진 문화공동체, 세계 속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체제로 바꾸고 재래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로 서민경제도 살리겠다. 문화와 관련된 사람과 산업체와 자본이 끊임없이 광주에 모여들게 해야 한다. '인권의 도시'인 광주를 세계적인 복지와 평화도시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통령 출마 시도, 노무현 탄핵 시도와 열린우리당 입당 등 정치 행보가 오락가락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적 두 가지 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두 가지 당적을 보유한 경향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이 옳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의 국회의원 힘만 믿고 위대한 시민의 통찰력을 도외시한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이후 지난 2007년 5월29일 노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 사과했다.

-여론조사 선두지만, 상대 후보들은 낮은



리더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시대적 인물과 새로운 인물의 차이는 세월로 평가 하는 게 아니다. 다른 후보들과 나이는 비슷하지만, 이미 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창설해 지금의 문화수도의 바탕을 깔았다.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을 유치,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에도 기여할 정도로 혁신적이라고 자부한다. -경선을 결정 과정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했다. 현재 경선물에 만족하는지?

▲중앙당 결정에는 찬성한다. 그동안 경선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선 룰은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당의 보다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 이용섭 후보

공직 있을때 지역발전 기여
광주정서 누구보다 잘 알아

-광주에서 제일 잘못된 점,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광주의 주인인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없다. 광주의 리더는 산업시대의 낡은 방식, 익숙한 관행, 권위적 행정을 버리고 창조적 발전전략과 봉사행정을 펼쳐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

-광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만 꼽는다면?

▲우선, 안정적인고 지속 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산업 육성으로 광주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개조해야 한다. 또한, 광주만의 '유일함과 독특함(only one)'을 가진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광주의 문화적 잠재력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광주 도시 자체가 '한국적이고 호남적인' 문화 콘텐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문화예술 지원본부 ▲취약계층 지원본부 설치 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된지 2년도 안돼 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공직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광주에 와보니 '경제적·정치적' 양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출마했다. 공직 동료 등 인적 자산을 활용해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 창의성이나 도전정신도 지금이 가장 속성돼 있을 때여서 결심한 것이다.

-장·차관 등 화려한 경력에 비해 지역을 위해서는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점과 광주정서를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에서도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 지원했던 지역사업도 열



거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건설,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를 합평과 광주에서 다녔는데 지역 정서를 모르겠나. 공직생활 중 유능한 고향 인재들을 많이 중용했다. -개혁성과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공직생활 중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술선수법'과 '문제의식'을 통해 극복했다. '내가 하는 일은 올바른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를 항상 고민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평생을 두고 그러한 방식을 실천해 온 탓에 '혁신성'이 몸에 배었다. '개혁·혁신 인물'이라는 평가는 청와대 혁신수석 발탁 배경에 언론이 말한 것이다.

■ 정동채 후보

화합·통합 이끌어 위기 돌파
시민소통 리더십 필요할 때

-광주에서 제일 잘못된 점,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유는?

▲광주는 지금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광범위한 위기인데,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단합과 협력을 해 위기극면을 돌파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지금의 광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는?

▲첫 번째는 CEO(지도자)의 리더십과 자질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몸여 익혔다. 두 번째는 광주를 먹여살릴 정책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문화수도 사업으로 2천 605억원을 광주에 가져왔다. 앞으로 5조원 이 더 투입된다. 세 번째는 광주정신을 계승한 화합과 통합 그리고 소통이다. 광주시장은 광주정신에 부합되고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과 통합, 시민과 소통하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광주시장 출마 권유를 받았는데, 왜 이례적 출마를 마하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광주시장 출마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 사실은 중앙에서 광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하자고 했었다.

-2002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당시 당선자의 공천을 취소하는 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시장위원으로서 책임을 묻는 여론도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시장경선도 마찬가지다. 각 후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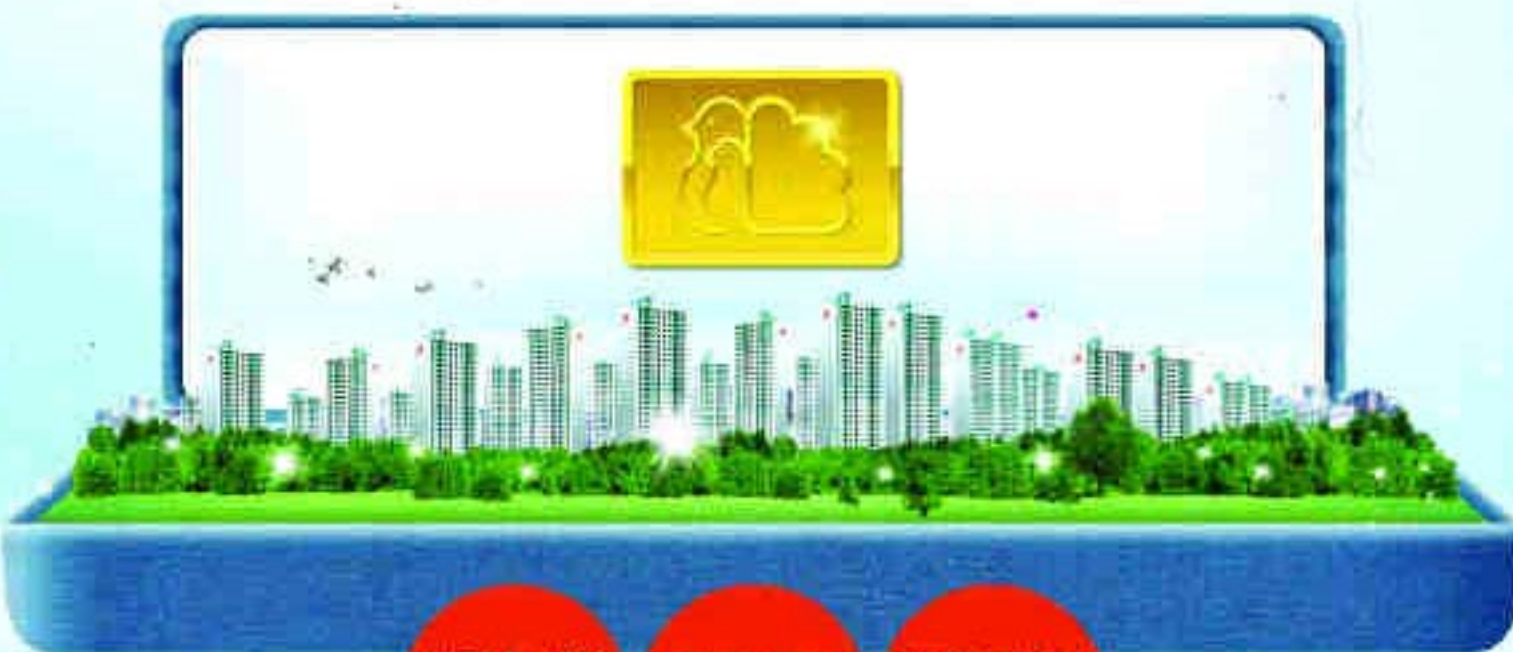
불법·혼탁 선거를 시장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법선거나 후보에 대한 징계나 주의 등을 시장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부여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광부 장관 시절 바다야기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책 실패 아닌가.

▲약 6개월에 걸쳐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모든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혈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았다. 결백하다는 증거 아닌가. 그 정책은 장관 부임 전 추진되어온 제도로서, 책임기간 중에 사행성 게임 규제법을 만들어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고품격 주거문화가 시작됩니다!

新 주거문화를 선도해 온 '사랑으로, 부영' 광주 하남 신도시에서 누리는 고품격 생활에 미래까지 - '사랑으로, 부영' 3차와 함께라면 내 생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선착순 계약 4월 9일부터 즉시입주 가능 (신시공 후분양) 입주지정기간 5개월

광주 하남 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3차 임대분양!

전면면적	층 별	세대수	임대시월가액	
			보증금	임대료
84㎡	가층	75세대	7,800만원	5만원
			8,800만원	12만원
			9,300만원	22만원
	1~2층	84세대	3,800만원	32만원
			7,300만원	5만원
			8,300만원	12만원
			4,800만원	22만원
			3,300만원	32만원

- '사랑으로, 부영'이 드리는 특별한 혜택!
- 발코니 확장(거실, 침실 1·3, 주방) 및 새시 시공
 - 강화마루(주방·거실) ■ 드레스룸 및 화장대 시공(침실1)
 - 불박이장 시공(침실3) ■ 지역 난방(열병합 발전소)공급

문의 전화

- 한국아파트나 1577-5533
- 샘플하우스 062)962-5071
- 모텔하우스 062)365-8324

계약서 공시율 계약금 1500만원, 도관, 신도시 분양주택단지 http://gwangju.bcoyoung.co.kr

(주)부영주택 Bcoyoung Housing Co., Ltd.